지혜의 바다, 지중해에서 교훈을 담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연구책임자: 윤용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아랍학과 교수)
연구기간: 2018.03.01-2025.02.28.

1997년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설립된 지중해지역원은 2007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인문한국지원사업(Humanities Korea) 해외지역 연구(지중해 지역의 문명 간 교류 유형 연구)를 수행했고, 2018년부터는 '지중해문명교류학의 글로벌 허브 구축'이란 아젠다 하에 인문한국플러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둘러싸인 바다,

지중해는

地中海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가 만나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검푸른 바다는 인류의 삶을 제약하는 장벽이 아니라,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셈이죠.

지중해를 통해 연결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는
교역과 전쟁,이주 등의 형태로 서로 긴밀히 교류하며
지중해의 역사를 함께 쌓아 왔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고도로 발전된 '혼종'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7,800km 나 떨어져 있는
지중해를 한국에서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중해의 역사가 인류 문명과 문화의 보고(寶庫)라는 전통적인 이유 외에도 작금의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지중해 문명의 재해석과 문명 교류 담론의 빈곤성 탈피

2

인류 문명은 '공공재 (public goods)'

3

함께 어울려 사는 길을 찾다

이에 국내 유일의
지중해 연구기관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은

지중해학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바다라는 공간 속에 출렁이는 문화의 다양성과
정치·경제 중심의 역사, 그리고 문학과 예술 속 지중해의
모습까지 두루 훑어보기로 한 것이죠.

Q		A
언제까지 해외 학술 성과의 번역과 소개에 만족할 것인가?	1	· 해외 지역 연구 분야의 학문적 자주 독립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소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 마련 등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2	· 21세기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비 등

**유럽중심주의적 시각을 경계하고,
글로벌한 관점에서
창의적 지식 생산을 위해
'지중해문명교류학' 연구에 매진!**

한국연구재단도 '지중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 개척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중해문명교류학의 글로벌 허브 구축'이란 아젠다 하에 세계적 선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 토대를 지중해지역원과 함께 구축해나간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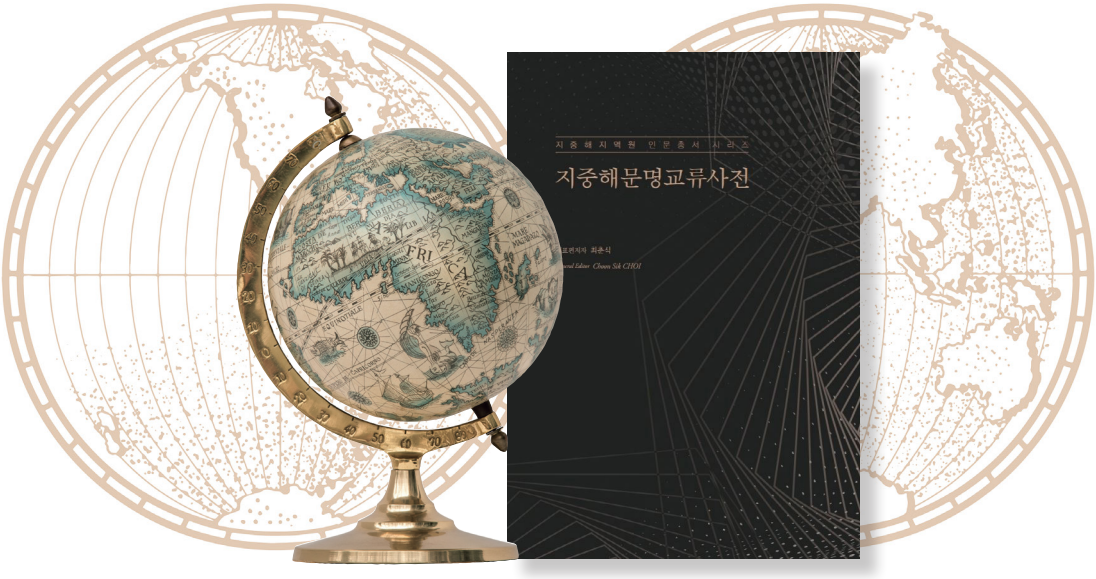
HK

2007년
인문한국지원
사업

+

HK+

2018년~2025년
인문한국플러스
사업



그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지중해문명교류사전입니다.

지구사적(Global History)인 시각에서
지중해 역사를 다룬 최초의 사전으로써,
인류 문명의 모태인 지중해 문명에 대한
총체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역사를 특정 인종이나 국가에 치우치지 않고 교류와 상호성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인 것이죠.

〈1〉	〈2〉	〈3〉	〈4〉	〈5〉
문명교류학의 이론 체계와 연구 방법론 (관계균형론) 국내외적으로 공식화	문명교류학을 독립된 학문 분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87개의 주요 키워드	제도, 규범, 민족지, 이주, 종교, 지식, 문서, 사상 등을 기준으로 표제어 선정	새로운 역사 기술의 방향성 제시

이번 사전 발간은 지중해 문명교류 연구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지중해 문명교류의 사상(寶庫)을 위한 토대 구축

2. '한국형 문명교류학'의 확산 독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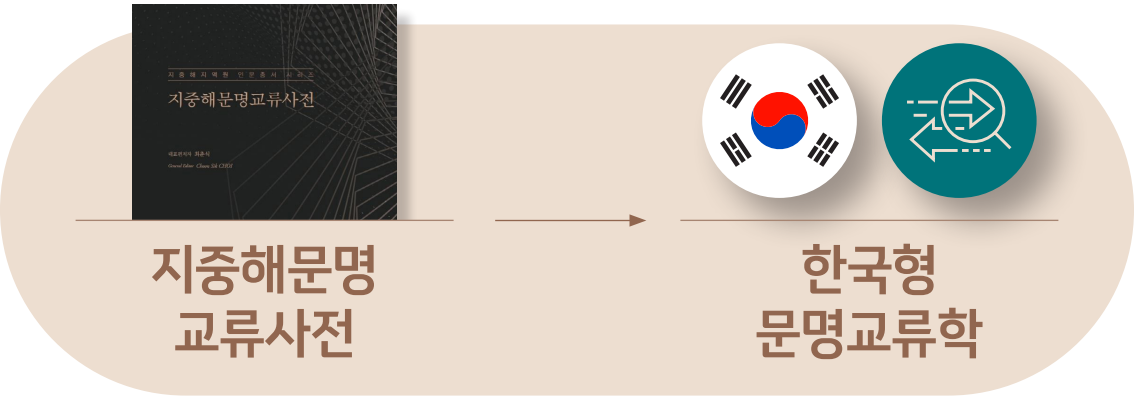
3. 국제 공동 연구의 호혜성과 선도성, 실용성을 실천하는 글로벌 학술교류의 성과물

4. 지중해 문명교류학의 국제적 관심과 타당성 확인

그리고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결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 및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중해문명교류사전』은

우리의 관점에서 지중해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한국형 문명교류학'의 공식적인 출범을 의미합니다.



또한, 문명 교류의 관점에서 지중해 역사에 대한 균형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문명교류학의 확산과 일반화를 위한 주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다문화 글로벌 시대,진정한 소통과 공존을 위해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사업(HK+)이 지중해학 발전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NRF 한국연구재단